

‘신정아 파문’ 한국사회 패닉

政·官 이어 경제·문화·종교계까지 문어발 로비...性스캔들 비화

檢 ‘신씨 지원’ 정부 부처 수사 확대

광주비엔날레 예술감독 선정과 동국대 교수 임용 과정의 학력 위조 의혹으로 시작됐던 신정아씨 파문이 대선을 앞둔 한국사회 전 분야를 뒤흔들고 있다. <관련기사 3면>
 검찰 수사 등을 통해 신씨가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의 ‘부적절한 관계’를 넘어 정·관계, 경제계, 문화계, 종교계 등에 문어발식 로비를 시도한 징후가 포착되면서 대형 스캔들로 번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신씨의 누드사진이 한 언론에 의해 전격 공개되면서 ‘성(性) 스캔들’로 비화하고 있다.
 변 전 실장의 신씨 비호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 서부지검은 변 전 실장

이 정부 부처 예산을 동원, 신씨를 지원했는지 조사하기 위해 정부 각 부처로부터 관련 자료를 넘겨받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특히 변 전 실장이 기획예산처 장관으로 임명된 2005년 이후 신씨가 성곡미술관 큐레이터로서 18차례 이상 집중적인 기업 후원을 유치한 것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확대되면서 후원 기업들은 행여 불똥이 튀지나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대우건설은 2004년부터 2006년까지 3년간 성곡미술관에 모두 2억9천만원의 후원금을 지원한 것으로 밝혀져 이 과정에서 신씨와 ‘가까운 사이’로 드러난 변 전 실장의 외압이 작용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당시 사장이었던 박모씨가 변 전 실장의 부산고 동기이면서 평소 친분이 두터운 사이였기 때문이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13일 장기표 새정치연합 대표가 제기한 신정아씨와 금호아시아나의 연계설에 대해 사실 무근이라고 강력히 반박하기도 했다.
 한나라당 권영세 의원은 이날 산업은행의 “연도별 문화예술 부문 협찬 활동 내역”을 공개하면서 은행측이 문화·예술 행사 후원 가운데 미술 분야(3건)에서는 유독 신정아 씨가 근무했던 성곡미술관에만 지원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신씨가 주민국 큐레이터로 활동한 스페인 아르코(ARCO) 국제아트페어에 대한 정부 지원 예산이 신씨 재직 기간에 10억원 늘어난 것

로 드러나기도 했다.
 최근 신씨가 모 언론사와 전화통화에서 “(변 실장) 정도가 권력 배후면 난 수도 없이 많다”고 밝힌데 이어, 13일 한 중앙일간지가 문화계 유력인사의 집에서 신씨의 전신 누드 사진이 여러장 발견됐으며 사진과 함께 보도, ‘성로비’ 의혹까지 제기되자 문화계 등은 패닉 상태에 빠져들고 있다.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대신이 100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한나라당은 이번 의혹을 권력형 비리를 의미하는 ‘게이트’로 규정하고, 청와대와 정권을 향한 전방위 압박을 강화하고 있는 반면, 경선레이스에 속도를 내고 있는 대통합민주신당은 흥행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하며 당혹스런 표정이 역력하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추석 차례상 차리는 외국인 주부
 광주·전남 지역에 사는 외국인 주부들을 위한 ‘추석 차례상 차리기’ 행사가 13일 광주시 북구 남도향도음식박물관에서 열렸다. 농협 전남본부 주관으로 열린 이번 행사에는 베트남·필리핀·일본이 국적인 40여 명의 외국인 주부들이 참여, ‘송편 만들기’ 등 다양한 한국의 추석 음식문화를 체험했다.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문화전당 주변 민자 개발

문광부·관광공사, 특급호텔 건립 등 외국자본도 포함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주변 도심활성화를 위해 특급호텔을 건립하는 등 대규모 민자유치 사업이 추진된다.
 13일 문광부와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전남도청 이전 등으로 인해 극심한 도심공동화를 겪고있는 문화전당 주변을 도심 속 관광지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문화전당 주변 민자유치 사업’이 늦어도 올해 안에 추진된다.
 문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올 초 ‘문화전당 주변 민자유치 사업 개발 용역’에 착수, 지난 2월 광주시와 동구청, 문화전당 관련 자문위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자문협의회를 갖는 등 수차례 문화전당 및 도심활성화를 위한 지역 의견수렴을 거쳤으며 오는 10월 최종 용역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문광부는 문화전당만으로는 도심공동화 해소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 문화전당 개관 이전이나 개관과 동시에 민자유치 사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문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구상 중인 민자유치 형태는 전당 주변 3곳에

특급호텔을 세우거나 음악·게임·엔터테인먼트 등 문화산업 관련 대형 업체를 입주시켜 경제활성화는 물론, 유동 인구를 대폭 늘리는 것이다.
 문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이번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11월 열리는 ASIA MIPIM(아시아태평양 국제부동산마켓) 등 다양한 국제 부동산 투자박람회에 참가, 국제적인 잠재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문광부 관계자는 “문화전당 주변 민자유치 사업은 도심공동화 해소는 물론 문화전당 활성화와도 직결되는 만큼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면서 “도심활성화와 함께 문화전당의 기능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민자유치 사업을 유치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김종민 문화관광부장관은 13일 광주에서 가진 언론인과의 간담회에서 “동구지역 도심공동화 해소를 바탕으로 문화중심도시의 성공을 촉진하기 위해 민자유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채희종기자 chae@



‘기업 후원’ 관련 변양균씨 제3자 뇌물죄 검토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신정아씨 비호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 서부지검은 13일 변 전 실장에 대해 제3자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법률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변 전 실장이 기획예산처 고위 관료로 있던 시절에 신씨가 일하던 성곡미술관에 다수 대기업이 거액을 후원한 사실을 확인하고 전날 기업들과 성곡미술관 관계자를 불러 후원 대

가로 청타이 있었는지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검찰은 신씨의 동국대 교원임용 책임자인 홍기삼 전 동국대 총장과 광주비엔날레 예술감독 선임의 책임자인 한갑수 전 비엔날레 재단 이사장

등에게서도 위법성이 드러날 수 있다고 판단해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변 전 실장의 주거지, 이메일 계정, 노트북 컴퓨터에 대한 압수 수색 영장을 이날 중 재청구할 방침이며 변 전 실장의 청와대와 협의해 사무실 컴퓨터를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청와대에 변 전 실장에 대한 민정수석실 조사자료도 요청했다.
 /연합뉴스

엘빈 토플러 “여수엑스포, 바다가치 깨닫는 계기”

국제심포지엄 기조연설...노대통령, 참석자 청와대 초청 오찬



2012 여수세계박람회 유치에 위한 제2차 국제심포지엄이 13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개막되면서 정부와 전남도·여수시 등 지자체가 막판 부동표 잡기 총력전에 돌입했다. <관련기사 6면>

노무현 대통령은 심포지엄 첫 날인 13일 청와대에서 세계박람회기구(BIE) 대표단 등 심포지엄 참석자들과 오찬을 갖고 정부의 여수엑스포 개최 의지를 재강조하는 한편, 오는 11월 27일 개최지 결정 투표에서 여수를 지지해달라고 호소했

다.
 이날 청와대 오찬에는 BIE 회원국 장·차관과 각국 대표들과 강무현 해양수산부 장관, 김영주 산업자 원부 장관, 김중훈 통상교섭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박준영 전남지사와 오현섭 여수시장도 청와대 오찬과

대표단 개별 면담 등을 통해 여수의 엑스포 준비상황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지지를 당부했다.
 또 김재철 세계박람회 유치위원장과 정몽구 유치위원회 명예위원장, 조석래 전경련 회장, 이윤우 삼성전자 부회장 등 재계 인사들도 이날 오찬에 대거 참석했다.
 /박지경기자 unipark@kwangju.co.kr

맞춤식 한옥 공모 공고

본 공모는 우리 전통 한옥의 우수성을 계승·발전시키고, 현대 생활에 적합한 한옥을 개발하기 위한 사업으로, 건축물 10여 채를 공모하여 우수작을 선정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공모 대상은 2007년 9월 14일부터 2007년 10월 15일까지이다. 공모 대상은 2007년 9월 14일부터 2007년 10월 15일까지이다. 공모 대상은 2007년 9월 14일부터 2007년 10월 15일까지이다.

첨 리 날 도 지 사

1. 공모 목적

본 공모는 우리 전통 한옥의 우수성을 계승·발전시키고, 현대 생활에 적합한 한옥을 개발하기 위한 사업으로, 건축물 10여 채를 공모하여 우수작을 선정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공모 대상은 2007년 9월 14일부터 2007년 10월 15일까지이다. 공모 대상은 2007년 9월 14일부터 2007년 10월 15일까지이다. 공모 대상은 2007년 9월 14일부터 2007년 10월 15일까지이다.

2. 공모 대상

본 공모는 우리 전통 한옥의 우수성을 계승·발전시키고, 현대 생활에 적합한 한옥을 개발하기 위한 사업으로, 건축물 10여 채를 공모하여 우수작을 선정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공모 대상은 2007년 9월 14일부터 2007년 10월 15일까지이다. 공모 대상은 2007년 9월 14일부터 2007년 10월 15일까지이다. 공모 대상은 2007년 9월 14일부터 2007년 10월 15일까지이다.

공모기간: 2007. 9. 14 ~ 2007. 10. 15

공모대상: 2007. 9. 14 ~ 2007. 10. 15

공모장소: 2007. 9. 14 ~ 2007. 10. 15

공모문의: 2007. 9. 14 ~ 2007. 10. 15

공모문의: 2007. 9. 14 ~ 2007. 10. 15

공모문의: 2007. 9. 14 ~ 2007. 10. 15



본 공모는 우리 전통 한옥의 우수성을 계승·발전시키고, 현대 생활에 적합한 한옥을 개발하기 위한 사업으로, 건축물 10여 채를 공모하여 우수작을 선정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공모 대상은 2007년 9월 14일부터 2007년 10월 15일까지이다. 공모 대상은 2007년 9월 14일부터 2007년 10월 15일까지이다. 공모 대상은 2007년 9월 14일부터 2007년 10월 15일까지이다.